

6강 만남을 통해 돌아서다

첫 번째 만남: 마니교의 파우스투스를 만나다 (5권)

두 번째 만남: 밀라노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 (6권)

세 번째 만남: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 (7권)

1. 회심의 첫 번째 계기: 어머니

회심: 돌아서다 *conversio*

1) 어머니의 꿈

어머니가 꿈에 보니 자기가 나무로 된 잣대 위에 서 있고 슬퍼하고 서러움에 기진해 있는데 눈부시게 환한 젊은이 하나가 명랑하게 자기한테 함박 웃으면서 다가오더랍니다...무슨 일로 그렇게 날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고 까닭을 묻더랍니다. 어머니가 제 멸망을 두고 울고 있노라고 대답했더니 그 젊은이는 안심하라면서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음을 눈여겨보라고 타이르더랍니다...당신께서는 이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되 오직 한 사람뿐인양 돌보시며, 저희 모두를 돌보시되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III,xi,19)

2) 어머니의 기도

당신께서 높은 데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마니교의 깊은 흑암으로부터 저의 영혼을 끌어주셨습니다. 당신 신도인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당신께 눈물을 흘리던 까닭이었습니다. 육신의 장례를 치루면서 곡하는 어머니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말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이(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이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이가 기도를 바치는 장소마다 그이의 눈에서 쏟아져 나와 땅을 적시던 눈물을 당신께서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III,xi,19)

그(주교)는 자기도 어렸을 적에 미혹에 빠진 어머니로 인해서 마니교에 넘어갔었다는 얘기도 같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거의 읽었을 뿐만 아니라 모조리 베껴 쓰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런데 누구와 맞서서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설득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어떻게든 그 종파를 벗어나야겠다고 깨쳤고 마침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울며불며 애걸복걸 그저 한 번만 저를 만나서 말 좀 해보라고 끈덕지게 졸라대자 그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한테서 그만 가시오. 잘 될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눈물 바람을 맞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저와 대화하는 중 그 얘기를 회상하는데 주교의 대답을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받아들였답니다. (III,xii,21)

2. 회심의 두 번째 계기: 주교 파우스투스

나의 허가 당신께 드리는 나의 고백의 제물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 당신은 내 허를 만드셨고 또한 그 허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뼈를 고쳐주시어, 고침을 받은 그 뼈들이 ‘당신과 같은 자 누구리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V,i,1)

저는 거의 아홉 해 동안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저들의 말을 청강하면서 저 파우스투스라는 자가 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따금 만나던 사람들 가운데 저런 문제에 관해 제게서

반박으로 나오던 질문에 대답이 궁할치라면 저에게 그 인물을 내세우기 일쑤였고, 그가 도착하여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것이며, 아마도 더 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V,vi,10)

곧바로 그가 아주 평범한 수준의 문법을 조금 공부한 것 외에는 자유학예에 대해 전혀 교양이 없음을 간파하였습니다....거기다 날마다 강연을 하는 행사를 갖다 보니까 그로부터 언변이 풍족해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고 천성으로 타고난 세련미로 인해서 미혹하는 언변이 된 것입니다. (V,vi,11)

■ 진리는 오직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V,vi,10)
진리(verum) vs 거짓 (falsum)

■ 파우스투스는 무지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V,vii,12)

■ 하나님이 진리를 향해 놀랍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V,vii,13)

3. 회심의 세 번째 계기: 암부로시우스

그가 신비의 휘장을 벗겨서 영적으로 풀어줄 때에는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진리인지 저로서는 아직 모르던 참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오류에 거꾸로 떨어질까 두려워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피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진리에 대한 판단유보(suspensio) 때문에 더욱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VI,ix,6)

마지막 혼돈의 삶 (6권 13장-15장의 내용)

- 어머니가 밀라노로 찾아와 아들의 결혼을 강권.
- 좋은 집안의 여성과 약혼시키고 동거하던 여인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냄.
- 하지만 약혼녀가 법정 결혼 연령에 모자라 파혼에 이르고 어거스틴은 다시 다른 여성과 동침

저를 사로잡아 격렬하게 괴롭히던 것은 대부분 만족을 모르는 욕정을 채우려는 습성이었고 그 사람(그의 친구 알리피우스)으로서 경이감이 그를 사로잡아 끌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지존하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흠덩어리 같은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가련한 자들을 가련하게 여기셔서 놀랍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건져내시기까지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VI,xii,22)

4.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고(refectio)
참다운 힘을 얻게 됩니다. (et ibi refectio et vera fortitudo) (V,i,1)